

서로에게 소식을 전함시다

동 정

- ◆ **이세근** 회원 (부산 사하 경우회장)
이 회원은 최근 교육인적 자원부가 주관하는 「배움터 지킴이」 워크숍 및 발대식에서 「내가 지켜본 학교폭력근절의 여명」이란 주제로 우수사례 발표를 했다. 지난 1년 동안 부산경찰청이 시범운영해 왔던 「배움터 지킴이」 활동에서 자원 봉사자로 일해 왔던 그는 『학교폭력을 근절시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갈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정착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밝혔다.

- ◆ **최영종** 회원 (경우문예위원회)
지난 4월 26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관철동 31빌딩에서 가진 제 14회 한맥 문학가 협회(회장 이주철) 시상식에서 「不逞臣民 - 어느 징용자의 수기 -」란 작품으로 소설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 017-343-8753

- ◆ **성환복** 회원 (독도자연생태 연구회장)
성 회원은 최근 「한라 죽포제전 위원회」가 제주 한라산에서 개최한 전국 漢詩 백일장에서 장원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평소 漢詩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던 성 회원은 지난해 한시작법이란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 ◆ **안태영** 회원 (대구경우회 사무처장)
안 회원은 최근 대구경찰청에서 발간하는 「달구벌 치안소식지」에 「사랑하는 후배들에게」란 제목으로 기고를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안 회원은 기고문을 통해 『퇴직한 경우들도 영원한 경찰의 지원군으로서 현직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다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며 『선배 경우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 줄 것과 퇴직 이후 꼭 경우회의 문을 두드려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 ◆ **오일남** 회원 (충북제천 경우회)
현직 시절부터 그림그리기에 남다른 소질을 가지고 있어 知人들에게 초상화를 그려주곤 했던 오 회원은 퇴직이후 佛敎家로서 새 삶을 살고 있는데, 최근 오백 나한도를 완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 회원은 『앞으로 자신의 그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상으로 기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소 변 경

- ◆ **마산중부경우회**
경남 마산시 성호동 47-14 북마산 치안센터 2층
☎ 055)244-7776
- ◆ **이균범** 前 경우회장 (동신대 총장)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27번지 도곡 렉슬@ 407동 804호
☎ 02-3462-5050
- ◆ **최낙병** 회원 (부산금정 경우회장)
부산시 금정구 구서 2동 1049 롯데캐슬@ 501동 1104호
☎ 011-862-5177, 051-514-5170
- ◆ **김연수** 회원 (前 총경)
충남 계룡시 금암동 우림@ 113-502호
☎ 042-841-9818

- ◆ **김성덕** 회원
서울 강남구 청담 2동 30-33 청담 대림@ 104동 1201호
☎ 02-6205-7723, 011-359-0780
- ◆ **안길동** 회원
경북 경주시 하동 300-1
☎ 054-746-1107

- ◆ **정영일** 회원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 1동 33-187번지 대방 점보맨션 4동 105호
☎ 010-5585-5357

결 혼

- ◆ **이두선** 기우회장 (前 강원황성서장)의 차녀 지은 양이 오는 5월 13일 토요일 오전 12시 서울 장충동 소피텔 엠베세 더 호텔에서
☎ 02)2292-1321
- ◆ **조재환** 회원의 장남 영우군이 오는 5월 27일 토요일 오전 12시 30분 서울 강남 역삼동 ING빌딩 리더스 클럽에서
☎ 02) 6264-3159, 011)9705-3195

- ◆ **김용택** 총경 (경기 이천서장)의 장남 승배 군이 지난 4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명성교회 베들레헴관 3층에서

- ◆ **이춘삼** 경위 (창원서부서)가 지난 4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50분 부산 BEXCO내 2층 그랜드 홀에서

- ◆ **공재권** 경위 (경찰청 총무과) 지난 4월 23일 일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북구 미아동 빅토리아 호텔 웨딩홀에서

- ◆ **심차섭** 회원 (부산경우회 사무처장)의 장남 재우군이 오는 6월 11일 일요일 오전 12시 50분 부산해운대 벅스코 웨딩홀
☎ 011-871-1952

부 음

- ◆ **박수용** 회원의 부친이 지난 4월 13일 오전 7시 숙환으로 별세.

- ◆ **김상년** 회원 (서울 남대문 경우회 사무국장)의 모친이 지난 4월 23일 오전 11시 30분 숙환으로 별세.
향년 92세.

- ◆ **윤희석** 경감 (서울 성동서 수사과)의 부친이 지난 4월 20일 밤 12시 30분경에 노환으로 별세.

인 사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김상봉 교육홍보이사 (58세, 前 경북경찰청장)
- 한정갑 교통과학연구원장 (51세, 前 울산경찰청장)



김상봉



한정갑

◆ 경찰공제회

- 박광현 사업관리이사 (前 인천경찰청장)



행 사 안 내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범국민대회 개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 하태신)이 오는 5월 10일(수)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제 26회「2006.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경찰청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이택순 경찰청장과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의 234개 각 지자체별 교통안전지수 통계순위를 발표하는 한편, 교통질서 유공자에 대한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무사고 운전자에게 영년 표시장 수여하고,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다짐하는 교통안전 결의문 채택과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선물 “교통안전 대한민국”, “스쿨존을 주목하라”」 등 2편의 영상물이 상영된다.



참전경찰회 경찰병원 위문

참전경찰회는 전국총회 직후인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경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을

방문하고 전, 의경들을 위한 티셔츠 250벌 및 빵과 음료수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경찰 수사권 조정에 힘 보태기로

— 搜友會, 정기 모임 개최 —

搜友會(회장 최종락)는 최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금년도 첫 모임을 갖고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힘을 보태기로 하는 한편 숲의 발전과 회원 친목도모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락 회장은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고, 참석 회원들

도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자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날 모임은 수우회 창립 멤버들인 이택기, 유명두, 이영주 고문 등과 신입회원인 김종원, 이두선 회원 등 총 31명이 참석하여 과거 수사 사례 등을 회고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을 비롯, 모임의 활성화를 논의했다.

專門醫에 듣는다

심는 치아

— 양 유 식 박사 (양유식 치과의원)



최근에 인공치아를 심어달라는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치아를 심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알고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신문이나 잡지를 통하여 상당한 상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신다.

“심는 치아” 학문적으로는 치과 매식학(Dental implantology)에 속하며 속칭 “임프란트”라고 부른다. 즉, 치아 악골에 인공합성 물질을 고정하여 상실한 치아의 보철적 수복을 가능케 하는 술식을 말한다. 역사적 조망을 해 보면 유럽, 근동(近東)과 중앙 아메리카 등에서 옛날부터 사람이나 동물의 치아, 조각한 뼈, 상아조각, 진주 등의 물질을 이용하여 상실된 치아를 복구하려는 시도들을 인류학적인 연구를 통해 볼 수 있다. 18세기와 19세기의 자연과학의 발달과 과학지식의 의학적 적용에 힘입어 악골 내에 이물질을 매식하여 상실치아를 보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지금 현재와 같이 생체 내에 가장 잘 적합되는 금속인 티타늄을 이용한 임프란트는 스웨덴의 「브레네막」(Branemark)이란 해부학자가 1965년 처음 인체에 식립하므로써 오늘날 광범위하게 사용되게 된다.

현재 300가지가 넘는 치과 임프란트 시스템들이 법제계적으로 상업화되어 쓰이고 있다. 20년전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은 임프란트 사용에 회의적이거나, 완강히 거부하였지만 지금은 임프란트 세미나가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되고 있다. 실제 임프란트의 성공률은 거의 98% 이상이며, 우리병원에서 그 동안 시술한 통계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치아가 없어서 틀니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시지만,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전혀 그 고통과 절망감을 모르실 것이다.

실제 틀니의 저작능력은 자기치아의 30%~50%(정도) 밖에 안된다. 뿐만 아니라 잇몸에 많은 힘을 받으므로 상처가 잘 생겨서 고통 받는 때도 많다. 틀니를 경험해 보신 분들에게 임프란트는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치아가 상실되어 부분틀니를 해야하는 경우도 임프란트를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가히 혁명적인 치료법인 임프란트이지만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

첫째, 임프란트가 심어져야할 악골의 상태가 어떠한가 조사해야 된다. 악골의 뼈가 너무 많이 적거나, 신경이나 상악동이 가까워서 충분한 깊이로 심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해야 한다. 둘째, 전신적인 질환을 조사해야 하는데 당뇨가 심하거나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혈액응고 체계에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은 조심해야 한다. 셋째,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는 점이다. 고도의 정밀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술식과 비싼 재료와 복잡한 수술장비들로 인하여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는 경우는 임프란트 시술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20년간 눈부시게 발전한 치과 임프란트는 상실된 치아의 가장 완벽한 대체 수단으로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다. 실제 시술 받은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만족감을 표시한다. 그러나 임프란트의 약점은 시술 후 관리와 유지가 따르지 않으면 쉽게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기 치아에는 역시 미치지 못한다. 비싼 치료비를 들여 임프란트를 하지 않도록 현재 자신의 치아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진료 안내 : 02-2234-2982)